

## 잘츠부르크, 보쿤구-이켈라, 산 이그나시오 그리고 대구의 주교들이

### 그들 공동체들에 보내는 사목 서한

1974년 9월 잘츠부르크 대성당 120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잘츠부르크)대주교님의 초청으로 잘츠부르크에서 만나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황 성하의 사절이신 드 퓨르스텐베르그(De Fuerstenberg) 추기경님, 자매 교구에서 온 대표 신부님들, 평신도분들께서는 잘츠부르크 대교구의 본당 공동체와 더불어 주교좌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였으며 친밀한 담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 형제애를 경험했습니다. 주교좌 성당에서의 미사 거행 때 낭독된 교황 성하의 생동감 넘치는 인사 말씀이 우리의 자매 결연을 반겨 주셨습니다.

잘츠부르크 대교구는 1968년 교구 시노드에서 볼리비아, 한국, 자이르 내 교구들과의 수년 간 맺어 온 친밀한 만남을 기반으로 잘츠부르크, 보쿤구-이켈라, 산이그나시오, 대구 교구 간의 자매 결연 협력을 위한 바램을 표명했습니다. 1974년 9월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협의회들에서 우리 주교들은 교구 간 자매 결연적 협력을 강화하고 기도와 사목적 돌봄, 우리 교회의 사회적, 문화적 과제에 관해 최선을 다해 서로를 지원하기로 공동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네 개 교구의 자매 결연을 통해 하느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형제애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 안에서 형제적 의미가 실현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만민을 아버지로서 돌보시는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고 서로 형제애로 대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한 조상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 온 땅 위에서 살게 하신"<sup>1</sup>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똑같은 하나의 목적, 바로 하느님께로 부름 받고 있습니다."<sup>2</sup>

오늘날 기술 발전 덕분에 여러 대륙의 민족들간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 문화, 관습의 차이로 인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간극으로 인해 민족 간의 형제애가 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회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일치의 가시적 성사"<sup>3</sup>로서 민족을 일치시키는 형제애를 통한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 교회를 민족 안에서 대표하는 것이 지역 교회이며, 따라서 보편 교회는 지역 교회 안에서 구현됩니다.<sup>4</sup> 그러므로 지역 교회에서는 교회 전체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생동감 있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민족들 사이의 긴밀한

<sup>1</sup> 사도 행전 17,26

<sup>2</sup> 사목 현장 24 항

<sup>3</sup> 칼 라너, 요셉 라칭거, Episkopat und Primat, S. 28.

<sup>4</sup> 같은 책., S. 24

유대를 맷도록 정해졌기 때문에”,<sup>5</sup> 우리는 교구들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민족들을 하나로 묶는 교회의 형제애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전체 교회는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라고 언급하듯,<sup>6</sup> 우리 자매 교구들 또한 하느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누룩과 빛의 역할을 다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역 교회가 이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사람들의 바람과 걱정, 도전 과제와 어려움을 잘 공감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시대에 걸쳐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여 신앙 증거적 답변을 해줄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된 진리가 깊이 있게 파악되고 이해되며 또한 알맞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마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그 세계의 기대와 열망 그리고 때로는 극적이기도 한 그 특성을 인식하고 이해하여야 합니다.”<sup>7</sup>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sup>8</sup> 교회의 본질에서 비롯된 이러한 과제들은 지역 교회가 고립된 채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교회와 교회 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츠부르크, 보쿤구-이켈라, 산이냐시오, 대구 자매 교구들의 결연은 이러한 교회의 과제와 목표에 구체적인 방식으로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교적 봉사가 각 지역 교회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염원은 우리 자매 교구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인간을 위한 봉사의 사명은 단일 공동체 혹은 교구보다 항상 큰 힘을 지니며, 동시에 이 봉사를 위한 파견의 사명은 오로지 지역 교회간의 협력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애는 상호 경험의 교환과 서로를 위한 교회의 공동체적 돌봄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매 교구의 본당들은 아무런 관계 없이 평행 선상을 사는 것이 아닌 서로를 위한, 그리고 서로와 함께하는 진정한 연대 안에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삶을 실현해야만 합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가 다음과 같이 강조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회중은 이러한 공동체적 사고와 행동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마침내 교회의 여러 부분들 사이에는 영적 부요와 사도적 인력과 현세적 자원에 관한 긴밀한 친교의 유대가 존재합니다. 사실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들은 서로 선익을 나누도록 불렸으므로,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주신 갖가지 은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1 베드 4,10) 한 사도의 말씀은 각 개별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sup>9</sup>

---

<sup>5</sup> 사목 헌장 42 항

<sup>6</sup> 선교 교령 2 항

<sup>7</sup> 사목 헌장 4 항

<sup>8</sup> 사목 헌장 1 항

<sup>9</sup> 교회 헌장 13 항; 1 베드 4,10.

우리의 자매 교구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기도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는 세계적이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 형제 공동체의 신앙 생활 안에서의 바램과 필요한 것들, 사명과 어려움들뿐만 아니라 기쁨과 진보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가능해 집니다. 우리가 "당신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주님의 청원을 주님의 기도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마음 가짐은 우리 자신의 공동체와 교구를 넘어 볼리비아, 한국, 자이르 내 자매 교구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또한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매년 주님 공현 대축일에 우리는 네 개의 자매 교구에서 "세계 자매 교구의 날"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의 기도 예식과 미사 거행 안에서 우리는 이 날을 특별한 방식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자매 교구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바램과 소망에 대해 알아갈 것입니다.

동시에 이 기도 공동체는 본당과 자매 교구 사이의 영적 공동체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매 결연"이라는 단어는 단일체인 각자가 서로 긴밀히 연결될 때 서로를 보완하고 의미 있는 전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네 개의 협력 교구 간에 더욱 활발한 경험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 파트너 교구는 다른 민족과 다른 대륙에 있는 지역 교회이며 신앙의 영위를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기에, 삶의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생명력을 더 잘 인식하고 항상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자매 교구 간의 경험 교류는 특히나 유익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트너 교구의 개별 본당, 소공동체 및 기구들 사이의 직접적이고도 친밀한 만남을 통해 종교적 경험을 나눔으로써 이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결국 자매 결연이란 우리가 가진 바를 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인가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 교구 공동체는 고유한 역사, 문화, 생활 방식을 가진 특정 민족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이러한 민족의 전통과 관습, 문화와 사고방식은 또한 우리 지역 교회의 보화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구의 공동체들 간의 자매 결연적 관계들은 자매 교구 민족들의 문화적, 정치적 여건에 대한 상호적 이해와 존중으로 확장되는 사회적, 경제적 이해 관계에 대한 진보적 지식과 이해를 통하여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유다인-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구약 성경내 유대인 백성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끊임없이 돌보았고 이로써 잃어버려선 안 될 보물을 전체 교회에 전해 준 것처럼, 우리 자매 교구들의 인간적, 문화적 가치들이 상호 만남과 함께하는 경험의 교류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과 문화의 친교를 통해 자매 교구의 신자들은 "가톨릭 신자가 된다는 것은 상호 이어져 있다는 것"<sup>10</sup>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그리고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보편성의 힘으로, 각

---

<sup>10</sup> 요셉 라칭거(Diakonia – vor einigen Jahren (5-6)

부분이 그 고유한 은혜를 다른 부분들과 온 교회에 가져다 주어, 전체와 각 부분은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며 일치 안에서 충만을 함께 도모하는 가운데에 자라나게 됩니다."<sup>11</sup>

마침내 기도와 정신, 삶과 문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매 교구의 공동체적 관계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적 형제애 안에서 개인적 헌신과 물질적 희생을 통해 서로를 돋고 형제 공동체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신뢰하며, 교구 간의 자매 결연의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신자들의 믿음을 더욱 살아있게 하고 사랑은 더욱 깊고 활발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가 다음과 같이 말했듯이, 성년의 정신에 입각한 우리의 자매 교구적 협력이 민족 간 평화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행복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람들이 신뢰로써 정신과 재능의 자산을 서로 나누지 않는다면, 지상에서 이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민족들 그리고 그들의 존엄을 존중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형제애의 성실한 실천이 평화 건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짐을 고쳐, 온 누리와 저 평화의 임무를 바라보며, 인류의 더 나은 진보를 위해 함께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sup>12</sup>

1974년 10월 8일 잘츠부르크에서

잘츠부르크 대주교

칼 베르그

대구 대주교

서 세례자 요한

보쿤구-이켈라 주교

산 이그나시오 주교

요셉 바이글

보니파시오 마데르스바커

---

<sup>11</sup> 교회 현장 13 항

<sup>12</sup> 사목현장 78 항, 82 항